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 “평화위한 참된 대화 필요”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 신년사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2023년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 대주교는 지난 29일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모든 가정과 온 누리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빈다.”면서 “새해 첫 날은 ‘평화의 날이다. 우리가 기원하는 평화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또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존중과 참된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평화의 필수 조건이요, 상호 존중은 대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새해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한반도와 온 누리에 하느님의 평화가 더욱 정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우리 모두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까지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변영하는 정의를 추구하면서 참다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비판 말고 상호 존중을” 한기총 신년 메시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이 “서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존중하자”는 내용의 신년 메시지를 내왔다.

김 회장은 “새로운 소망의 한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북한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와 맞지 않고 심지어 적대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포용’이라 한다.”며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통합의 기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인 이념적 갈등까지도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지금,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처럼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마음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 어떤 것이 ‘참나’ 인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찬란한 광명이 어둠을 삼켜버리듯 사바세계에 가득한 아집과 독선, 갈등과 투쟁의 어둠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등, 자유와 평화가 충만하여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과학의 발전과 물질의 풍요는 역설적으로 극심한 경쟁과 급변하는 환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환경의 공해는 이기적 탐욕과 물질 추구의 전도된 가치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치달려 온 결과입니다.

새해에는 마음의 눈을 뜨고 인간 본성을 회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실상을 바로 보면 사람 사람마다 진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본마음은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태양보다 밝습니다. 이 마음을 닦아 본마음을 깨달으면 큰 지혜와 큰 자비가 구족하고 자유와 평화가 충만한 행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나고 날 적마다 참다운 행복과 안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의 송나라시대에 ‘소동파’는 당나라·송나라 8대 문장가에 속한 대학자였는데, 어느 날 세상의 문장과 재주, 식견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로는 참선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하루는 노산홍룡사에 상종 선사라는 안목이 고준한 선지식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게 되었습니다. 선사께 예를 올리고 말하였습니다.

“선사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이에 상종 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쩌서 유정설법(有情說法)만 들으려 하고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들으려 하지 않는고?”

소동파는 선사의 물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과 정이 있는 유정물뿐만 아니라, 산이나 바위나 나무 같은 무정물도 설법을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에 의심이 깊게 사무치게 되었는데, 친견하고 일어나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온몸과 온마음이 이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말 등에 앉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소동파는 한 생각에 깊이 빠져서 문득 의심삼매에 든 것입니다.

‘어떻게 무정물이 진리를 설할 수 있는가? 왜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그렇게 수십 리 먼 길을 말을 타고 돌아가다가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산골짜기에서 짙동 같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에 크게 깨달아 마음의 고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승을 지었습니다.

계성자시광장설 (溪聲自是廣長舌/ 산색기비정정신 (山色豈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계 (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하거사인 (他日如何舉似人)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소리가 팔만사천 지혜의 말씀인데/ 산색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 아니겠는가!/ 밤이 옴에 팔만사천 법문을/ 다른 날에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서 보일꼬.

이후로 소동파는 남은 생을 마음의 고향에서 지혜와 자비로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근원이요,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민족입니다.

산하대지와 산천초목이 제각각 진리를 표현하고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화 속에 주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상호관계 속에 서로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과 공존 속에 원숙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는 반목과 대립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호 존중과 자비연민이 실현되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허물을 성찰하고 국민민복을 염원하며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때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국가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에게는 자비연민을 베풀어 원용화합의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붉은 해가 떠오르니 온 세상이 찬란한 화장세계(華藏世界)요, 나날이 설날이며 시시(時時)가 태평성세로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진제 스님-

#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